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4. 24.(월) 11:00 < 4.25.(화) 조간 > 배포 2023. 4. 24.(월)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분야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야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 -

- 우리 수출기업들의 미국 관세정책 이해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4.24.(월) 14시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관세정책 및 통관 이슈 사례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한국무역협회, 한미경제협의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관세청,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이 공동 주최한 금번 세미나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세정책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관 관련 사례를 공유하여 기업의 관련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안덕근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동맹은 한미 FTA를 기점으로 기존의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바,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투자 역시 2~3배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한-미 교역) '11년 1,008억불 → '22년 1,916억불 (1.9배)
* (한-미 투자) (韓→美) '02~'11년 439억불 → '12~'21년 1,495억불 (3.4배)
(美→韓) '02~'11년 243억불 → '12~'21년 480억불 (2배)

또한,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7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양국 기업의 역할이 컸다"고 언급하면서 "그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시장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온 만큼, 이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디지털, 친환경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업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기업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정부도 투자유치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어려움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헨리 안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경제 협력은 양국 동반자 관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한미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세정책과 현안 등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1분기 대미 무역흑자는 72억불을 기록하였고 당분간 대미 수출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간 통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가 관세협력 증진은 물론 양국간 산업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관세청과 미국관세국경보호청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관세 관련 이슈, 전자거래·지재권, 원산지증명, 외환거래 등에 대한 양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추진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포럼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들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첨단산업기술협력 등을 논의하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팀 장	이주영 (044-203-5640)
		담당자	사무관	강정현 (044-203-56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